

명실상부 글로벌 시리즈 '킹덤: 아신전'



넷플릭스 한국 오리지널 시리즈 킹덤의 프리퀄 아신전. 연합뉴스

좀비·역사극 결합 넷플릭스 한국 오리지널 시리즈 해외 매체들 높게 호평... 국내 인기 순위 부동의 1위

좀비와 역사극을 결합한 넷플릭스 한국 오리지널 시리즈 '킹덤'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콘텐츠로 자리매김했다.

최근 전 세계에 공개된 프리퀄 '킹덤: 아신전'이 시즌1과 2편을 합친 것 이상의 완성도를 보여주면서 추후 '킹덤' 시리즈가 다양한 배경과 에피소드로 뻗어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킹덤: 아신전'은 조선을 뒤덮은 거대한 비극의 시작인 생사초와 아신(아역 김시아·성인 전지현 분)의 이야기를 압축적으로 담았다.

차갑고 매마른 북방을 배경으로 해조산 공굴과 남쪽 지역을 주로 보여줬던 이전 시즌들보다 거친 매력에 느껴졌고, 생사역들과의 전투도 더욱 처절하게 그려졌다.

서사 측면에서도 소외된 변호사들이 조선 군관들과 파져워 사이에서 이윤된 후 각성한 아신이 피의 복수를 하는 이야기로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성과 몰입감을 함께 갖췄다. 물론 우리 민족이 아닌 필박받은 여진족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복수를 그렸다는 점에서 국내 시청자들은 불편할 수 있다.

하지만 김은희 작가의 '영리한 계산'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김성수 대중문화평론가는 "조선과 여진, 주류와 비주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이민자 차별, 인종 차별에 대한 이야기로 확장했다. 불편하지만 전 세계적 시대 정신과는 정확히 어울리는 이야기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복수극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 복수하면서도 괴로워하는 아신의 모습을 통해 복합성과 입체성을 확보했다. 단순한 선악 구분으로 소화하지 않고 수준 높은 문제의식, 번뇌를 세련되게 담았다"고 덧붙였다. 시즌2 이후 1년 4개월 만에 찾아온 새로운 작품에 국내 팬들은 물론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넷플릭스 관련 시청 통계를 제공하는 '플릭스패트롤'에 따르면 '킹덤: 아신전'은 국내 넷플릭스 인기 순위에서 부동의 1위(이하 7월 29일 기준)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전 시즌들도 10위권에 안착하며 다시 보기 열풍이 이어지고 있다. 해외 매체들도 여러 각도에서 '킹덤: 아신전'을 높게 평가했다.



16일 미니앨범 컨셉으로 돌아오는 걸그룹 레드벨벳. 연합뉴스

뜨거운 여름 식힐 신곡 '서머퀸' 귀환

레드벨벳, 다숨·효린 컴백

여름철에 낸 곡이 잇따라 히트하며 '서머퀸'이라 불리는 걸그룹들이 다시 한번 서머송을 들고 돌아온다.

레드벨벳은 오는 16일 여섯 곡이 수록된 미니앨범 '퀸덤'(Queendom)을 발매한다.

2019년 12월 발표한 '더 리브 패스 티벨 피날레' 이후 1년 8개월 만에 완전체로 선보이는 앨범이다.

레드벨벳은 그동안 대표 히트곡인 '빨간맛'을 비롯해 '파워 업', '음파 음악', '집살라빔' 등을 잇달아 흥행시키며 여름철 음원 강자로 거듭났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가 2일 공식 트위터를 통해 "여름이다! 레드벨벳 흥을 돋우자!"라는 글을 올린 만큼 레드벨벳 신보 역시 여름을 겨냥한 곡으로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16일 데뷔 7주년과 신보 발매를 기념해 네이버 브이라이브 '비온드 라이브' 채널에서 온라인 팬 미팅도 열 예정이다.

'원조' 서머퀸 걸그룹인 씨스타 효린과 다숨은 프로젝트 신곡을 통해 다시 뭉친다.

컨텐츠랩 비보는 '2021년을 잘 보내는 방법' 프로젝트 일환으로 효린과 다숨이 함께 부른 신곡이 오는 10일 발매된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힘든 시기를 보내는 대중을 응원하고 음원 수익을 기부한다는 취지에 공감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다.

2010년 데뷔한 4인조 그룹 씨스타는 '소쿨', '셰이크 잇', '터치 마이 보디', '러빙 유' 등 여름에 발표한 댄스곡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으나 2017년 해체를 결정하며 팬과 대중의 아쉬움을 남겼다.

"응원에 기운 나요... 시즌3 기대"

TV조선 '결혼작사 이혼작곡' 해령역 이가령의 카운터 펀치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는 TV조선 주말극 '결혼작사 이혼작곡'에서 걸로만 강해 보였지만 이번이 당하기만 했던 부혜령(이가령 분)이 드디어 카운터펀치를 날렸다.

전날 방송에서 부혜령은 난입인 사실을 숨긴 채 판사현(성훈) 집안에 이혼을 받아들이겠다고 위자료를 챙겼고, 뒤돌아서서 기자회견을 열어 뒤통수를 치며 판사현을 몰락시켰다.

"혜령이가 응원받으면 일단 기운도 나요. 만약 주변에 혜령이 같은 인물이 있었다면 어찌 기자회견을 보고 '혜령아, 잘했어. 그 정도는 당연해'라고 말해줬을 거예요. 만약에 송원 같은 친구가 있다면요? 내 친구라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내 친구 남편의 내연녀라면 '아니 이게?' 하면서 머리채 잡았을 것 같네요. (웃음)"

2일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난 배우 이가령(본명 이수연·32)은 전날 활약에 자신도 속이 시원한 듯 환하게 웃었다. 판사현과 그의 내연녀 송원(이민영)은 물론, 판사현의 부모까지 모두 등을 돌린 부혜령을 연기해온 그것기에 마음고생도 심했던 듯 보였다.

"혜령이는 사랑받지 못했어요. 그러면서도 '못된 이미지'만 부각됐죠. 시댁 어른들 볼 때는 그래도 재밌었는데, 송원과 연기할 때는 힘들었어요. 혜령이가 강인한 모습만 보이고 말이 거칠어 그렇지 마음이 강한 친구는 아니에요. 자기를 지키는 방식이 좀 셋을 뿐이죠. 그런데 남편과 시댁은 식구가 짜고 치니 배신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사현이와 송원이 알콩

달콩 준비하는 것만 봐도 질투 났어요. (웃음)"

이가령은 시즌3를 기대한다며 "혜령이에게도 사랑을 주는 사람이 등장했으면 좋겠다"며 "속살이만 하다가 드디어 이혼했으니 이제 행복한 삶을 살기 바란다고 했다."

이가령은 시청자 입장에서 같은 연령대인 사현과 혜령 커플이 가장 몰입하고 공감했다면서 "TV조선 분방송은 물론 넷플릭스에서도 사랑받아 감사하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외국 드라마 많이 보듯이 외국에서도 현실을 보여주는 '결혼작사 이혼작곡'에 공감해주셔서 신기하다. 임신한

작가님의 필력과 차곡차곡 쌓은 서사 덕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결혼작사 이혼작곡"은 정말 잊을 수 없는 작품이 될 것 같다"며 "연기할 수 있는 현장에 있다는 게 그저 기쁘고 좋다"고 강조했다.

"이가령이라는 배우가 있고, 저 친구도 연기를 하고 있구나 하고 증명할 수 있는 작품이 돼서 참 좋아요. 작품이 끝나도 '아, 그 연탄 메이크업했던 혜령이 요새는 잘 있나' 생각나게 하는, 그런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연합뉴스

탄탄한 시즌 포맷 빛바랜 '보이스4'

OCN 드라마... 4.4%로 종영

2017년 OCN에서 처음 선보인 이래 네 번째 시즌까지 달려온 tvN '보이스'가 여전히 탄탄한 팬덤과 포맷을 입증했지만 내용 구성에서는 아쉬움을 남기며 종영했다.

1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50분 방송한 tvN 금토극 '보이스4' 최종회 시청률은 4.4%(이하 유료가구)를 기록했다. 시즌 자체 최고 성적이다.

마지막 회에서는 강권주(이하나 분)가 과거 자신이 동방민(이규형)과 F 아동 요양병원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내는 모습이 담겼다. 한편, 죽은 줄 알았던 방제수(권율 분)의 생존이 새로운 미스터리를 증폭시켰다.

'보이스'는 수사극으로도, 시즌제 작품으로도 안정적인 포맷을 갖췄다.

매 시즌 새로운 범죄자가 등장하고, 회차별로 새로운 에피소드들과 전체적인 스토리가 유기적으로 엮이는 것도 '보이스'가 지금까지 시즌을 거듭해온 원동력이었다.

그러나 이전 시즌들과 비교해 이번 시즌은 다소 아쉬움을 남긴 것도 사실이다.

이번 시즌부터 OCN이 아닌 tvN으로 채널을 옮기며 마니아를 넘어 대중성 확보를 노렸지만 시청률은 오히려 3%대에 머물렀다.

'보이스'가 장수 시즌으로 거듭나기 위한 주인공 캐릭터들을 재정비하고, 이야기 구성도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KBS1	KBS2	MBC	JIBS/SBS	EBS1
6: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인강극장 8:25 아침마당 9: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9:45 KBS 뉴스 제주 10:00 2020 도쿄올림픽 농구/비치발리볼	6: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6: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7:00 올림피아 투데이 8: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9:00 KBS 아침 뉴스타임 9:20 여가는 도쿄 11:30 여가는 도쿄 탁구/육상대결	6:00 MBC 뉴스투데이 1부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TV에가진 해피플러스 8:30 2020 도쿄올림픽 레슬링/다이빙/탁구/육상 11:00 2020 도쿄올림픽 레슬링/다이빙/탁구/육상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20 JIBS 아침 뉴스 7:35 모닝와이드 3부 8:35 SBS 도쿄올림픽 탁구/다이빙/레슬링 11:00 SBS 도쿄올림픽 탁구/다이빙/레슬링	7:45 숲속 배달부 빙빙 8:00 땀방울 유치원 8:30 홀딩 슈퍼퀀스 9:40 우리집 유치원 12:00 EBS 글로벌 뉴스 13:00 일단 해봐요 14:10 EBS 다크프라이드 15:15 클라스 e 16:00 마사와 곰 16:30 땀방울 유치원 18:00 생방송 밤과 후문들 19:35 자이언트 펭TV
12:15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2:30 2020 도쿄올림픽 농구 13:00 열린채널 13:40 UHD 솔라 컬렉션 14: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2 14:30 KBS네트웍스 빅 버라이어티 15:05 김영철의 동계 한 바퀴(재) 16:00 사사건건 17: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7:20 2020 도쿄올림픽 체조	15:00 KBS 뉴스타임 15:10 여가는 도쿄 다이빙 남3m 결승 16:30 여가는 도쿄 축구 남자 준결승	13:30 MBC 뉴스 13:40 2020 도쿄올림픽 탁구/레슬링/체조/다이빙 16:40 2020 도쿄올림픽 탁구/레슬링/체조/다이빙	13:00 SBS 도쿄올림픽 다이빙 16:30 SBS 도쿄올림픽 레슬링/체조	제주 CBS FM 93.3MHz 90.9MHz 7:00 김기영의 아침뉴스 7:20 김현정의 뉴스쇼 9:00 그대창가에 감성혼입니다 12:00 CBS 뉴스 12:05 천왕이 있는 숲길 13:30 생명의 생 15:00 CBS 뉴스 17:05 시사매거진 제주 18:00 CBS 저녁종합뉴스 18:25 김종대의 뉴스업 21:35 라디오강연 22:05 백원경의 가스펠 아워
19: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9:20 2020 도쿄올림픽 탁구/농구 22: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23:05 KBS 뉴스 9 제주 23:30 더 라이브	20:00 여가는 도쿄 아쿠아티스틱 스워밍/ 스노보드/라이빙/육상 22:00 육탄방의 문제아들 23:30 우리가 사랑한 그 노래 새가수(재)	19:40 MBC 뉴스데스크 20:40 아무튼 출근 여름특집 스페셜 22:40 나 혼자 산다 스페셜	19:50 SBS 8 뉴스 20:30 JIBS 8 뉴스 21:00 순간포착 세상을 이룬일이 22:00 신발 벗고 돌싱포맨 23:20 골프왕전 편견과 공치리(재)	KCTV 7:00 KCTV 뉴스 8:00 열린TV광장 8:30 세계의 99방상 9:00 KCTV 뉴스 10:30 취미로 먹고 산다 12:00 세계의 99방상 13:10 여자 클라스 14:00 열린TV광장 15:20 열린지 퀴즈쇼 17:00 KCTV 뉴스 17:40 KCTV 시청자세상 18:30 세계의 99방상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TBN 제주교통방송 제주시 FM 105.5MHz 서귀포시 FM 105.9MHz

오늘의 운세	3일
	36년 과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밝은 내일을 꿈꾸자. 48년 문서 관련된 일은 손실이 예상되니 업무처리엔 신중을 기하라. 60년 사무라면 화가 오니 여유가 필요하다. 72년 미혼자는 중매가 생기고 기혼자는 집안일에 만족. 자녀에게 신중을 기하라. 84년 변동보다는 한번 마음먹은 일은 끝까지 추진하는게 좋다.
	37년 사사로이 감정이나 오해로 언쟁이나 주의. 49년 진퇴를 놓고 힘들이한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극복하라. 61년 내가 도와준 만큼 실속은 적다. 무리는 금물이고 욕심을 내지 말라. 73년 현재의 일이 힘들다고 변동하는 것보다는 자중할 것. 85년 이성교제가 진행되나 또 다른 이성으로 고민한다.
	38년 사석에서 한 말이 와전되니 언행에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50년 과다한 기대나 행동은 금물. 시기자가 생긴다. 62년 숨이 트이는 형국. 분주히 활동하는 일이 기다리고 있다. 74년 재물유이 강해 망신수가 우려되니 정도를 지켜라. 85년 취직 또는 문서상 기쁜 소식이 있거나 이성교제.
	39년 갈망하는 일이 눈앞으로 다가온다. 51년 변동이 불리하고 실패가 따르니 현상대 유지하는게 바람직하다. 63년 자녀로 인해 마음이 불편하다. 자녀 몸매 초과상 등이 우려. 75년 생각이 조금 바르다면 힘든 일이 풀리고 마음이 편안해진다. 87년 취직, 직장문제 스트레스를 받거나 부모님 문제로 바쁘다.
	40년 가까이 있는 사람과 다투는게 배려할 것. 52년 일이 있으면 기쁘고, 없는 자는 돈 문제로 걱정일 생긴다. 64년 자녀로 인한 근심이 오니 먼저 전화할 것. 76년 아이에게 격정이 생기기도 하지만 임신도 되는 시기이다. 88년 잘난 척하면 선배 또는 상사에게 미움을 받고 오래도록 간다.
	41년 업무에 인정받고 찾는 이가 많아진다. 53년 아랫사람 또는 자녀문제로 상담이 오간다. 전문가의 조언도 필요. 65년 도난이나 손재수 조짐. 외출시 문단속 철저. 77년 계산상 착오가 생기거나 머뭇거리다. 손재가 발생하니 기회 포착이 포인트. 89년 돈 문제로 신경이 예민해지고, 이성문제가 발생. 인정 주의.
	42년 조급함을 갖지마라. 성급함이 후회를 낳는다. 사업관련 금전 필요. 54년 지식의 보충문제로 고민이 있고, 분주하다. 66년 이성으로 인한 망신수 또는 구설이 우려되니 성회통 조심. 78년 모임이나 친목이 길한 날. 결혼성사, 득자, 이성교제 성신호. 90년 주변사람에게 칭찬을 받거나 동료가 인정해 준다.
	43년 책임이 무겁지만 원활히 해결하고 직장과 노후로 부러움을 얻기도 한다. 55년 초대를 받게나 내 역량을 때론 상대가 원한다. 67년 사소한 일에 참견이 큰 다툼이 되니 나서거나 간섭하지 마라. 79년 구매충동 또는 호기심이 강해지는 나타난다. 91년 약속이나 모임에 참여하니 응주는 자중.
	44년 좋은 일속에 흥이 도사리니 밑거름이 되는 것 중 하나. 56년 내 주장은 약하게, 상대의 주장을 많이 경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68년 자존심이나 자만이 집에 두고 일터로 향하라. 80년 마음껏 활동을 하거나 의욕이 필요하다. 친목모임 약속이 진행된다. 92년 이별에 상처가 되겠지만 또 다른 이성이 다가온다.
	45년 배짱과 결단력이 필요하지만 독단적 행동은 자제하고 주변과 협동이 좋다. 57년 나에게 맡겨진 일에 충실하고 타인의 일에 간섭은 금물. 69년 시비거리나 구설수 등이 우려되니 사소한 일에는 유연해져라. 81년 취업, 직장문제가 해결되고 좋은 소식을 접한다. 93년 서두르지 말고 때를 기다리던 일이 풀린다.
	46년 명예 또는 이익이 있다. 아랫사람과 다투는 것도 필요하다. 58년 투자는 때도와 매수하는 시기를 잘 선택하듯 문서변화 시 신중하라. 70년 활동량이 늘어나고 분주하며 이익은 서서히 나타낸다. 82년 어떤 일을 행하건 경계망동은 금물이나 뒷사람에게 공손하라. 94년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니 다시 외출하게 된다.
	47년 직장에 문제 발생, 스트레스를 받는다. 정리 정돈은 기본. 59년 돈의 흐름이 커지고 허황된 재물욕에 갈등을 한다. 71년 강한 호기심으로 변화를 가져보려 하나 지금은 차분히 현실에 충실하라. 83년 이성간에 교제가 이뤄지기도 하지만 헤어짐도 온다. 95년 큰소리가 오거나 불리하니 여유가 필요하다.

김종상 저단(해) 직업역학 원장
경기도 평택교수(010-5233-6136)